

[기고] 세대를 잇는 가교, 문턱 낮춘 '농지이양 은퇴직불'

안춘배 기자 | 승인 2026.05.27 08:58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올해 일흔다섯인 농업인 박 씨는 무릎이 시린 지 오래되었지만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해 오늘도 논에 나선다. 이처럼 노후 소득원이 없어 영농의 끈을 놓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은 전국 농촌 곳곳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 중 70세 이상 비중은 39.2%에 달하며 농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50%)을 넘어섰다. 마땅한 노후 대안 없이 논밭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이 농촌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영농 단절과 노후 불안이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공사에선 고령농의 은퇴를 돕기 위해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운영해 왔으나 변화된 농업 여건 속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신규 모집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하고 지원 단가 인상 등 혜택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강화해 2024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정책이 바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부터 만 84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직불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량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답·과수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한정된다.

은퇴농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지원책은 탄탄하다. 소유 농지를 '매도하면 연간 최대 24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를 선택할 경우엔 연간 최대 1920만 원을 각각 최장 10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농지연금과 임대차료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농지 매도대금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최적화된 구조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원책도 현장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기존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상 연속 영농이란 요건 탓에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업이란 고된 길을 걷다 보면 피치 못할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등으로 잠시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평생 흠과 함께해 온 분들이 단지 행정적인 '연속성기준에 가로막혔던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 31일부터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는 단순한 조건 완화를 넘어 평생 농업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국가 차원에서 높게 예우하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확고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 농업인들까지 폭넓게 포용하게 되면서 은퇴 후 소득 단절을 우려하던 농가에 한층 더 세심하고 견고한 노후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요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은퇴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개인의 노후 안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평생 일궈온 농지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령농의 영농 은퇴는 곧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출발로 이어진다. 농사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것이 밑거름이듯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에겐 안락한 노후를, 청년농에겐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농업 세대교체의 가교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량 농지는 영농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선 공급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332ha의 농지를 인수해 이 중 82.3%에 달하는 1096ha를 1321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남지역본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발맞춰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인수한 1332ha 중 20%에 해당하는 271ha를 청년농의 신규 농지 공급에 활용한 바 있다. 또 이와 연계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실집행액만 약 32억5900만 원에 달해 지역 고령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역시 전남지역본부는 전국 목표인 1300ha 중 20%에 해당하는 263ha의 농지확보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지역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뒷받침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신규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 세대교체의 연착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영농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농업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은행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은 물론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